

# 2007 제 1차 이사회 및 제 38차 총회 개최

## 협회장 인사말



도로교통 분야의 글로벌화 및  
선진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세계 최고의 도로교통 서비스를 실현해야...

**오늘** 도로교통협회 제 38차 총회에 참석해 주신 권병식 전임회장님  
과 최주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협회임원 및 대의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도로교통기구의 회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지난해  
동안 우리협회가 나라안팎에서 여러가지 알찬 수확을 거두고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대양주도로기술협  
회총회(REAAA)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회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우리  
협회 40년 역사에서도 첫손가락을 꼽을만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2010년 ITS 세계대회 부산유치”에 성  
공한 것과 더불어 그야말로 ‘겹경사’라 할 수 있으며 그간 우리가 펼쳐  
온 도로교통 글로벌화와 선진화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외 위상강화는 우  
리의 실질적인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기반확보와 함께 이뤄진 것이어  
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는 도로 총연장 10만km와 고속도로 3,000km 시대를 동  
시에 누리는 뜻 깊은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여기계신 도로교통인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  
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를 계속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선 오는 5월9일부터 4일간 우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 2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하는 막중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회원국이 42개나 되는 “아시아-대양주 도로교통장관회의”를 겸하는 데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함께 각종 첨단 도로교통시스템을 선보이면서 비교 우위를 겨루는 수준 높은 대회인 만큼 그 준비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6일 제 16회 “도로의 날”에 열리는 한국 최초의 도로관련 포럼인 가칭 “한국 길 포럼”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도로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도로정책 연구 및 정책건의를 주도하게 될 “한국 길 포럼”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도로교통인들의 국가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막중한 소임의 한 중심에 바로 우리협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로교통인들이 주도해야할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도 자동차 2,000만대시대가 예상되지만 도로건설 재원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어서 우리는 이에대한 민간차원의 대책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도시 주변과 주요 병목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지·정체를 해소하고 세계 최고의 도로교통 서비스 실현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바로 우리 손으로 해결해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협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불혹의 연륜을 가진 우리협회의 관록답게 올해는 우리가 맡은 분야의 모든 매듭을 훌륭히 풀어내는 한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도 화사한 4월의 꽃길처럼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6일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손 학 래

# 제 38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4월16일, 2007년도 제 1차 이사회 및 제 3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성회 대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열린 이날 총회에는 손학래 협회회장을 비롯해 황광웅 건화회장, 손 정 고속도로관리공단 사장,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사장 등 부회장단과 복기찬 한국도로공사기술본부장, 최주형 극동엔지니어링 회장 등 이사진, 그리고 조상국 대보건설 사장,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등 단체회원사 대의원 및 김한용 한솔엔지니어링 사장 등 개인대의원들을 포함, 총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의제로는 2006년 회원현황 등 4개 보고사항에 이어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0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개선(안) 등 3개 심의안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됐다.

